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민만찬사

존경하는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각하 내외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바쳐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이뤄 냈고, 그 위에서 온 국민이 함께 땀 흘려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바쿠의 바다와 도시 곳곳의 건설공사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에 26%, 지난해에는 35%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년 동안 GDP가 두 배나 늘었습니다.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에서 건설·전자·관광 등으로 산업을 다변화하면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코카서스의 중심국가로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으로 믿으며, 각하의 지도력과 국민의 역량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협력의 폭과 깊이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국 관계와 협력 원칙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오늘 ‘한·아제르바이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각하의 방문을 계기로 ‘투자보장 협정’과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도 체결됩니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과 같은 IT 협력사업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철도·항만 등 건설 분야도 협력의 잠재력이 큼니다. 특히 각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우리의 행정도시 개발 경험이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6월에는 서울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화주간 행사가 열리는 등 국민 간 교류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상주대사관도 최근에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가 좋은 친구로서 더 큰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아제르바이잔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